

**원유가 현실화 · 사료 대책 마련돼야**

전남지역 낙우(酪牛) 농가들이 생산비도 견디지 못하는 원유가격에 심각한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낙농농협 이사회는 지난 6월 8일 오전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한 낙농농협에서 회의를 갖고 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낙농농협에 따르면 고칼로리 수입 조사료인 알파파와 티모시 풀 가격은 1kg당 400원에서 최근 600원대까지 치솟았다. 또 배합사료도 25kg 한 포대에 10,000원 미만이었으나 현재 12,500원까지 가격이 올랐으며 이마저도 추가 인상될 것으로 알려져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07년까지 조사료 값은 1kg당 평균 250원이었던 반면 원유값은 1ℓ에 650원으로 그나마 채산성이 유지됐었다. 그러나 현재 원유값이 1ℓ에 평균 850원 대신 반면 조사료값은 1kg당 600원대까지 치솟고 여기에 줄줄이 인상된 경영비까지 포함할 경우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나마 배합사료의 경우 낙농농협에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동결하고 있었으나 국제곡물가 고공행진에 따른 원가반영 차원에서 이달 중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농가들의 고충이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발병한 구제역의 영향으로 경기지역 등을 중심으로 젓소가 대량 살처분되면서 국내 원유생산량이 급감한 바 있으며, 현재 국내 원유의 생산·공급은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남지역 낙우농가들이 상당부분을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료값 폭등과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원유가로 인해 국내 우유공급의 마지막 보루인 전남지역 낙우농가들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우유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낙우농가 김모씨는 "국내환경에 맞는 조사료로 유채와 라이그라스가 있는데 유채를 수확하고 나서 바로 라이그라스를 파종할 수 있다" 며 "4대강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영산강수변지역 유희지에 대단위 조사료 단지를 조성해서 낙우농가들에게 값싸게 공급해 준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업체 농가 정밀전 점검가장...편법까지**

유업체들이 원유확보를 위해 편법까지 동원해 가며 낙농가 유치에 나서면서 기존 납유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기존 납유처의 기준원유량이나 계약관계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농장 매매를 통해 신규낙농가로 등록해 납유처를 변경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충북지역에서 충북낙협 소속 3개 목장이 제 3자에게 목장을 매매하는 방법을 통해 남양유업으로 납유처를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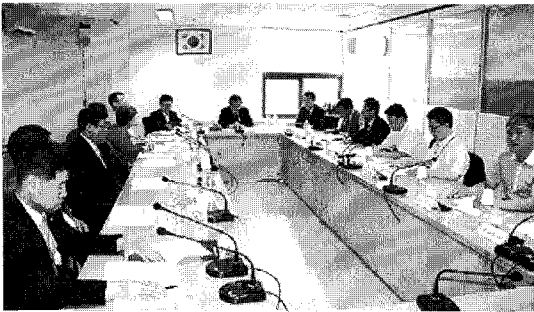
충북낙협 측은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목장이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기존 목장주들이 그대로 목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원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기존 목장주가 아닌 신규목장으로 납유를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북낙협측은 "젓소와 목장의 매매라는 편법을 통해 납유처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충북낙협에 납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앞으로도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민간 유업체들이 낙농가 빼가기에 나설 경우 영세한 협동조합 소속 낙농가들의 납유처 변경이 도미노처럼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충북낙협은 이번 납유처 변경과 관련 목장매매를 통해 납유처를 변경한 만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향후 집유선 분쟁을 촉발한 책임을 물어 향후 낙농진흥회 원유 공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FMD 이후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이 납유처를 변경해 낙농진흥회의 집유량이 60여톤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낙농가들이 납유처를 변경하려는 것은 그 동안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납유처 변경이 최근 원유부족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업체들이 원유확보를 위해 기준원유량을 폐지하고 이로 인해 기준원유량 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 젓소 입식자금 지원, 잉여원유에 대한 정상유대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기존 농가들만으로는 원유 생산량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

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FMD 등으로 인해 원유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업체간 집유선 쟁탈이 우려된다며 이로 인해 유통질서 혼란과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낙농산업 발전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원유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유대현실화 논의 구심체 닦아 올려**



원유가 현실화를 논의하기 위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지난 6월 14일 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목장경영안정과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논의할 이사회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 구성됨에 따라 원유가 현실화 문제를 포함한 낙농현안문제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사회 소위원회의 명칭은 '낙농경영안정 소위원회'로 하고 원유가 현실화를 비롯해 목장경영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소위원회의 구성은 생산자단체를 대표하는 3인과 유업체를 대표하는 3인 등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학계 대표인 윤성식 이사(연세대 교수)가 맡게 됐다. 생산측 위원으로는 신관우 이사, 심동섭 이사, 최재민 이사가 수요자측 위원으로는 김시환 이사, 최동욱 이사, 이건영 이사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소위원회 운영 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말까지 40일 동안이며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위원회는 운영기간 중 필요한 경우에 관련단체는 물론 해당 전문가들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지난 2008년 원유가 인

상 당시의 기준생산비와 현재의 추정생산비를 조사 분석해 인상요인과 인상률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 5월 18일 이사회에서 실무작업반을 구성했으며 실무작업반은 3차례 회의를 거쳐 이사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우유생산비 조사결과와 납득 못해" ...**

**낙농기, 통계청에 정보공개 요구**

낙농가들이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16일 법무법인 우신(변호사 오영중)과 회원농가·협회 사업관련 법률자문 협약을 하고 첫 사업으로 통계청 우유 생산비 조사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통계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유 생산비 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5월30일 통계청의 우유 생산비 조사결과에서 사육비·경영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수익이 늘어 수익성이 호전됐다는 발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대상 표본 160농가에 대한 선정방식은 물론 산유량과 지역·사육규모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공개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낙농가들은 통계청의 생산비 조사결과가 원유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원유가 현실화 논의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생산비 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농가들의 통계청 생산비 조사에 대한 불신은 현장에서 확인된다. 경남 진주의 장영한 씨(42)는 "통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며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우유 생산비에서 사료비는 오르고 산유량은 줄어 경영이 악화됐음에도 순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발표해 '기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낙농육우협회는 통계청 생산비 조사결과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낙농의 노동강도와 근로조건·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가노임 산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소 출생·폐사·이동신고 ... 5일 이내 마쳐야**

6월 22일부터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소를 거래한 경우 5일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소의 출생 등에 대한 신고 기간이 종전 30일에서 5일로 단축됨에 따라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추적을 위해 소의 출생신고기한 변경 등을 담은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22일부터는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소를 거래한 경우 5일 이내에 인근 농·축협 등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르던 소가 폐사한 경우에도 5일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육우의 귀표부착 기간도 종전 30일에서 7일 이내로 변경됐다. 한우의 귀표부착 기간은 현행과 같이 송아지 출생 후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하지만 귀표부착 기한 이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움직여야 한다.

농가에서 신고기간 등을 어겼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형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소의 출생, 거래 및 폐사 등은 이력추적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출생신고 및 귀표부착 기간이 종전 30일에서 5~7일로 대폭 앞당겨졌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제 원유 생산자가격은 크게 올랐는데...**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해 원유가 인상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생산자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진흥회가 지난 6월 9일 발표한 해외낙농산업 주요지표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EU, 뉴질랜드, 일본 등의 원유 생산자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3월 중 원유 생산자 가격은 490원으로 전월 470원에 비해 4.3%가 상승했으며 지난해 3월까지 평균 381원이었던 것이 올해 3월까지 평균은 420원으로 10.3%가 올랐다. 또 EU역시 3월까지 평균 516원으로 지

난해 동기간 458원보다 12.7% 상승했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405원에서 517원으로 무려 27.5%가 올랐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1천127원에서 1천170원으로 3.8%가 올랐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823원에서 830원으로 인상이 0.9%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생산자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비가 올랐기 때문인 것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원유 생산자가격의 인상에 따라 낙농가들의 증산의욕이 꾸준히 높아져 미국과 EU, 일본 등의 원유 생산량은 12.7%, 13.8%, 7.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희망젖소' 성과 빛났다**

낙농가들이 '희망젖소나눔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희망젖소나눔운동본부에 따르면 13일 현재 666농가가 구제역으로 살처분 피해를 입은 낙농가들을 돕기 위한 젖소나눔운동에 동참의사를 밝혀 4,183마리의 젖소를 운동본부에 위탁했다. 전국 낙농가가 7,0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낙농가 10명 가운데 1명가량이 동참한 것.

당초 산지 젖소값이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참여농가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나눔운동이 예상을 뒤엎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살처분 피해를 입지 않은 낙농가들이 국내 낙농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피해 농가들과 아픔을 나누겠다는 진한 동료애가 발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운동본부는 구제역 피해 농가들의 재입식을 돕기 위해 희망젖소나눔운동을 이달 30일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목장경영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희망젖소나눔운동에 동참해 준 낙농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제역 보상금에 종합소득세 부과 원망"**

구제역 피해농가들이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처지에 놓여 농가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구제역 관련 살처분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됨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구제역 피해농가들에게 발송한 상태다. 이에 농가들은 기본비과세금액 1,800만원에 더해 농가부업 규모(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닭·오리 1만5000수 등)까지는 비과세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은 2010년도에 살처분을 한 농가들이다.

이처럼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나오자 피해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의 한 한우농가는 “보상금은 말 그대로 보상금이어야 한다”며 “구제역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성시의 한 한우농가는 “정부가 아직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세금 고지서부터 내보내는 게 말이 되냐”며 “이번 구제역으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고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인 만큼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이건 대한회계법인 부장은 보상금의 성격을 봤을 때 과세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시가해당액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손실금액에 대한 보상으로 판단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이건 부장은 FMD(구제역) 피해로 보상금을 받은 농가들의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와 농가부업소득비과세를 활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재해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재해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양돈의 경우 1,800만원에 더해 성축기준 500두까지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다”며 “이 때 평균사육두수를 적절하게 산정해 두수공제액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이건 부장은 “축산업의 경우 종업원수가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종업원수가 50인 미만일 경우 소기업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30%, 수도권지역은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회계사무소 등과

의논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옥수수 기말재고율 ' 사상 최저'

2011·2012년 옥수수 기말재고율이 사상 최저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국제곡물가격이 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란 우려스러운 전망치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최근 발표한 국제곡물관측 7월호에 따르면 2011·2012년 옥수수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세계 옥수수 소비량도 동반 상승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1·2012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1.1%P 하락한 12.8%로 전망되며 이는 1973·1974년(11.8%) 곡물 파동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두 기말재고율 역시 전년대비 1.8%P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 소비증가에 따른 사료용 소비와 식용 소비 증가로 세계 최대 대두 소비국인 중국의 대두 소비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2012년 세계 대두 소비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억6321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두 소비량이 증가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두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1.8%P 하락한 23.4%로 전망되고 있다. 밀의 경우도 2011·2012년 밀 생산량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6억 6434만 톤으로 전망되지만 소비량이 6억6719만 톤으로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기말 재고율은 27.6%로 전년대비 0.8%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같이 기상악화 및 곡물 수요증가로 기말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불구, 6월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세계 경제 상황 악화 우려와 달러화 강세로 곡물 선물투기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흉수, 유럽의 가뭄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에 따른 파종지연 및 생산감소로 밀, 옥수수, 대두 기말재고율이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곡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향후 국제곡물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